
식민지의 복화술사(腹話術師)들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
소설쓰기-

김 철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러나 현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나는 지금 누나와 같이 있다는 자각이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까닭 없이 깜짝 놀란 것처럼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는 벤치를 떠나 해나무 숲 쪽으로 아주 빠르게 도망치는 푸른 지나 옷차림의 누나가 언뜻 보였다. 현은 더욱 놀라 텅기듯이 뛰어 나갔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토와 내지어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참이라, 뜻하지 않게 그것은 내지어였다. 게다가 그는 지금 자기가 내지어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말은 모르지만 동생의 큰 목소리에 누나는 화살 박힌 듯이 되어 한번 뒤돌아보았다. 바로 그때 이토가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외치면서 현 쪽으로 달려온다. 그것을 보자 가야는 드디어 망상의 공포에 사로잡혀 숲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현은 또 현대로 아무 것도 생각할 여유 없이 누나의 뒤를 쫓아 달리면서, “또 만나자, 또 만나.” 하고 뒤돌아보며 외쳤다. 이토는 어안이 병병해져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채였다.¹⁾

김사량(金史良 1914~1950)의 소설 「향수」(1940)에서 인용한 위의 장면

1) 이경훈 편역, 한국근대 일본어 소설선 1940~1944, 도서출판 역락, 2007. 43쪽.

은 한국소설 및 한국어와 관련된 꽤 까다롭고 복잡한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소설은 일본어로 쓰여 일본의 문학잡지인 『분케이순쥬(文藝春秋)』에 실렸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일본문학에 속하는가? 대답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 이 질문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우선 위의 장면에 주목하자.

무대는 북경이며 시점은 1938년, 바야흐로 중일전쟁의 포연이 전 중국을 뒤덮고 있는 때이다. 화자인 현은 어렸을 때 헤어진 누나(가야)와 매부(윤장산)를 찾아 북경으로 온다. 누나와 매부는 삼일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중국으로 망명한 왕년의 독립투사이지만, 지금은 비참하게 몰락하여 아편 밀매 따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의 장면에서 현은 누이 가야의 안내로 북경의 북해공원을 관광하는 중이다. 누이는 고달픈 생활에 쫓기면서도 동생과 함께 공원을 둘러보며 오래 만에 느긋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긴다. 그러다가 누이는 공원 저쪽에서 다가오는 일본 군인들을 보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힌다. 망명한 독립투사의 아내로서, 또 아편 밀매자로서 늘 헌병이나 관헌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그녀에게는 카메라를 어깨에 맨 채 공원을 거니는 일본 군인조차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긴장하고 있는 누이의 앞으로 공교롭게도 그 일본 군인들이 다가온다.

현은 놀라서 벌떡 일어선다. 그 군인들 중 하나는 현의 고등학교와 대학의 동창이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를 마음속의 동지로 부르며 손을 맞잡은 사이”인 이토 소위였던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이 이토 소위와 일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좀 전까지 그는 누나와 조선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화자는 누나에게 생각이 미친다. 그러나 일본 군인의 출현에 겁을 먹은 누나는 벌써 몸을 돌려 숲 속으로 도망치고 있다. 화자는 누나에게 “기다려요”라고 소리쳤지만, 그것은 일본어이다. 더구나 그는 자기가 일본어로 누나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나는 동생의 외침을 이해할 수 없다. 잠시 멈추었던 누나는 역시 일본어로 외치면서 달려오는 이토 소위를 보자 황급히 도망친다. 현은 이번에는 이토 소위를 보고 “또 만나자”고 외치면서 누나의 뒤를 쫓는다. 이토 소위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병병한 채 서 있다. 이것이 이 장면의 전후맥락이다.

누나가 일본어를 몰라서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돌발적으로 벌어진 이 상황 속의 세 인물이 저마다 완벽한 의사소통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장면에서 우리는 피식민지에서의 언어 상황에 관해 무언가 유용한 생각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작가 자신의 이력과 일치하는 화자 현은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다. 그는 일본어로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 언어로 자신의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유창한 일본어는 이 위기의 순간 일본어로 인해 빚어진 오해를 풀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그의 일본어는 오해를 더욱 증폭시킨다. 자신이 일본어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일본어로 외치면 외칠수록, 그는 자신의 형제로부터 멀어진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제국의 지배자 역시 그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식민지에서의 이중 언어 사용자 혹은 이중 언어 글쓰기 작가의 운명을 이토록 정확하게 상징하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식민지 시기에 최초로 일본어로 소설을 써서 일본 문단에 작가로 데뷔한 사람은 장혁주(張赫宙 1905~1997)였다. 경북 대구의 한 소학교 교원이었던 스물일곱살의 조선인 청년 장혁주는 1932년 일본의 유력한 좌익 문예지 『카이소(改造)』의 현상 공모에 「아귀도(餓鬼道)」라는 소설이 당선됨으로써 식민지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문단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자신의 일본어 소설 창작의 동기를 “민중의 비참한 생활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였다고 밝힌 장혁주의 소설 「아귀도」는 때마침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프롤레타리아트 문단에 ‘지주 계급과 일본 제국주의의 착취에 시달리는 조선 농민의 비참한 삶을 고발’한 가작으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장혁주의 일본 문단으로의 진출은 조선 문단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것이 모국어와 동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장혁주는 조선어로도 소설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특별한 눈길을 끌지 못했고 그와 조선 문단과의 불화는 날로 깊어졌다. 마침내 그는 1935년에 「문단 페스트균」이라는 글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1937년

에는 아예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그와 조선 문단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1938년에 그가 쓴 희곡 『춘향전』은 일본의 유명한 연출가인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義知)에 의해 일본 전국에서 순회 공연되었고, 조선에서도 공연되었다. 해방이 될 때까지 그는 일본어와 조선어로 창작을 계속했다. 태평양 전쟁 시기 그는 다른 많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전쟁체제에 협조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선전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장혁주의 일생은 이 짧은 글에서 다룰 수 없을 만큼 드라마틱한 것이거니와, 작가로서의 그의 궤적이 식민지 조선 문학과 조선어에 던지는 의미는 간단치가 않다. 사람들은 흔히 그가 일본어로 글을 쓴 것을 비난하지만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피식민지인에게 제국의 언어는 권력의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통로다. 영어로 창작하여 세계적인 문명을 얻은 아일랜드나 인도 출신의 작가들, 또는 프랑스어로 발언했던 아프리카 지식인들의 사례는 제국의 언어가 피식민지인에게 어떻게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일본어로 일본 문단에 데뷔한 장혁주의 '배신'을 묻기 전에, 40년 가까운 조선 신문학의 역사 이래, 또 그만한 기간의 식민지 지배 이래 어째서 일본어로 창작하려고 한 작가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일까를 물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을 장악한 '일본적인 것'의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 의한 일본어 창작이 오래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일본어의 압력을 견뎌낼 만큼 조선어의 역사성과 동질성이 워낙 강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국의 언어를 통해 제국의 중심으로, 나아가 '세계'를 향해 발언하려고 꿈꾸었던 식민지 출신의 작가 -어떤 점에서 이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인데-가 극히 회소했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특성과 연관하여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장혁주의 뒤를 이어 일본 문단에 진출한 조선인 작가가 바로 앞에서 예로 들었던 김사량이었다. 평양 출신으로 일본 큐슈(九州)의 사가(佐賀)고등학교를 거쳐 동경제대 독문과를 갓 졸업한 김사량은 1939년 단편 「빛 속에」(光の中に)를 『분케이슈토(文藝首都)』에 발표하고, 이듬해 이 소설로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쿠다가와 문학상의 후보에 올랐다. 도쿄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 혼혈 아동의 이야기를 그린 이 소설은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작가의 문명을 높인 출세작이 되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이은직(李殷直, 1939), 김달수(金達壽, 1940), 홍종우(洪鐘羽, 1941) 등의 조선인들이 일본 문단에 등장함으로써 식민지 출신의 일본어 작가라는 독특한 작가군(群)이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 신문학의 첫 세대인 이광수나 김동인 역시 어떤 점에서는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광수의 첫 작품은 「사랑인가(戀か)」라는 일본어 소설이었고, 김동인의 소설 역시 '구상은 일본말로 하고 그것을 조선어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근대문학이 일본을 거쳐 온 것임이 분명한 이상, 조선 작가들에게 일본어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었다. 그런 만큼 그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 언어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 일본어 글쓰기가 아니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일본어를 통해 문학을 익혔던 것이 분명했던 만큼, 조선어와 조선 문학이 그들의 절대 목표였고 의심할 수 없는 실체였던 것도 분명하다. 일본과 일본어를 통해 근대문학과 소설 쓰기를 배웠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조선어로 된 조선 소설이었고 그들은 거기에 매진했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 근대문학의 건설, 그것이 모든 식민지 작가들의 목표였고 존재 이유였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 작가들에게는 일본어 글쓰기가 강요되었다.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따랐다. 그리하여 조선인 작가들에 의한 수많은 일본어 작품들이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어 그들을 이중 언어 사용자 작가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의 의도와 목표가 언제나 조선어와 조선 문학의 수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장혁주와 김사랑의 소설 쓰기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본어로 시작했다. 일본어에서 시작해서 조선어 글쓰기로 나갔던 모든 식민지의 작가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그들은 택했다. 그들은 일본어로 쓰고 일본을 향해(동시에 조선을 향해) 말하고자 했다. 그러나 물론 모어가 아닌 일본어로 글쓰기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 고충을 장

혁주와 김사량은 자주 털어놓곤 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본어 창작의 길을 택했고 자신해서 이중 언어 사용자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 글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조선의 현실을 일본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일본어로 소설을 쓴다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장혁주와 김사량은 일본어로 외치면 외칠수록 자신의 형제로부터 멀어지면서 동시에 일본어 사용자에게도 불가해한 그 무엇으로 남겨지는 ('향수'의 화자와도 같은) 처지가 되었다. 조선 문단은 그들을 외면했고, 일본 문단은 일본어로 글을 쓰는 젊은 조선인 작가에 대해 신기한 에그조티즘 이상의 진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장혁주의 「權이라는 남자(權という男)」(1933), 「분발하는 사람(奮ひ起つ者)」(1933), 「다른 풍속의 남편(異俗の夫)」, 「협박」(1953) 같은 문제작들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모두 외면당했고, 그의 이름은 해방 후 임종국이 쓴 친일문학론의 한 귀퉁이에 '친일작가'로 잠깐 거명되었을 뿐이었다. 그의 작품집 『쫓기는 사람들과 소년』이 에스페란토어로 번역되어 폴란드와 체코에서 출간되고, 단편집 『산령(山靈)』이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사실, 그리고 그가 86세 때인 1991년에 인도의 출판사를 통해 『Forlon Journey』라는 영어로 쓴 장편소설을 출간했던 사실 역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대신에 그는 1952년에 일본으로 귀화함으로써 재일조선인들로부터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로만 기억되었다.

김사량의 작가적 경력은 길지 않았지만, 앞서 거론한 작품들 말고도, 「천마(天馬)」(1940), 「풀이 깊다(草深し)」(1940) 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건드리는 심각한 문제작들을 일본어로 써냈다. 해방 직전에 그는 중국 출장길을 틈 타 태항산에 있는 조선의용군 부대로 탈출하여 무장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6·25전쟁과 함께 그는 북한군의 종군작가로 활동하다가 전선에서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이 젊은 작가의 극적인 인생과 작가적 모험 역시 오래 동안 잊혀졌다. 남한에서 그의 이름은 역시 '친일작가'로 잠시 거명되었고 북한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기억에서 사라졌다. 1970년대에 재일 조선인 사회에서 김사량은 '저항 작가'의 본보기로 다시 조명되

었고, 북한에서도 다시 그의 작품집이 출간되었다.²⁾

장혁주와 김사량을 외면하든 기억하든, 그것은 모두 문학외적인 정치적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일본어 소설 쓰기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장혁주의 일본어 소설 쓰기에 대한 조선 문단의 반응은 1936년 8월 잡지 삼천리에 실린 「조선 문학의 정의, 이 러케 규정하려 한다」라는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 문학은 조선'글'로,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에게 '읽히기' 위하여 쓴 것>이라는 조선 문학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하여 이 기사는 당시의 대표적인 문인 12명의 견해를 설문 형식으로 묻고 있다. <조선'글'로,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에게 '읽히기' 위하여 쓴 것>이 조선 문학이라는 정의에 대해 응답자들은 모두 동의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설문이 장혁주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장혁주 씨의 작품은 조선 문학에 속하는가?”라고 묻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장혁주 자신이 일본어로 쓴 자신의 작품은 조선 문학에 속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듯, 조선 문학을 구성하는 절대적 조건으로서의 조선어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1936년의 조선 문단은 장혁주의 등장과 함께 떠오른 조선 문학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조선 문학=조선어>라는 등식을 굳세게 재확인하는 것으로 서둘러 봉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등식의 자명성은 다시 의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혁주나 김사량 같은 작가들이 지닌 의미가 단지 작품의 국적(國籍), 언어의 경계(境界)를 확인하고 그들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그 점에서 본다면 장혁주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장혁주나 김사량 말고도 수많은 조선 작가들이 일본어로 글을 쓰거나 발언했다. 오늘날 그것들은 민족과 모국어에 대한 비겁한 배신 행위로 밖에는 기억되지 않지만, 그 기록들을 꼼꼼히 들여다보

2) 장혁주와 김사량이 해방 이후 남북한 양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읽혀져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상허학보, 17호, 2006) 참조 바람.

면, 뜻밖에도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길게 상론할 여유는 없지만, 요컨대 적(敵)의 칼날을 잡고 적(敵)을 베어 넘기려는 이슬아슬한 정신의 곡예가 벌어지는 사례들도 무수히 많다. 그런 기록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생각건대, 제국의 지배 아래서 제국의 언어로 발언하는 피식민지인은 일종의 복화술사(腹話術師)이다.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들이다. 이 이슬아슬한 게임에서는 그들 스스로도 분열되고 파멸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모어의 자연성, 국어의 정체성, 국민문학의 경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수(匕首)가 된다. 오로지 하나의 언어만을 말하는 자, 모어의 자연성의 세계 속에만 갇혀 사는 자에게 제국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제국의 언어를 흉내(mimicry) 내는 자,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다른 생각을 시도하는 자에게 비로소 전복의 가능성이 열린다. 식민지의 이중 언어 사용자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동안 한국 문학은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들의 이중 언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복화술이 제국의 심장을 깊게 후비는 예리한 비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언어, 독자적인 국민문학의 경계만이 제국의 질서에 맞서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은 한 번도 의심되지 않았다. 그러는 한, 한국인은 그리고 한국 문학은 동생의 언어에 놀라 숲 속으로 도망치는 누이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 없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